연예뉴스 스테이션

이준기, 드라마 촬영 중 코뼈 골절…응급 수술

연기자 이준기가 10일 새벽 경북 문경에서 MBC 새 수목드라마 '밤을 걷는 선비' 촬영을 하다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이날 오후 수술을 받았다. 이준기는 부상 직후 서울로 옮겨져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와 검사를 받은 뒤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준기는 1주일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당분간 촬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MBC 드라마국 관계자는 "'밤을 걷는 선비'가 촬영을 일찍 시작해 방송분량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여서 큰 차질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밤을 걷는 선비'는 '맨도롱 또똣' 후속으로 7월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민호, 마스크팩 업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연기자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담 손석봉 변호사는 10일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호 측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최영 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해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고, 이민호 소속사와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브아걸' 제아 "소설같은 기사" 해체설 부인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리더 제아가 10일 제기된 그룹의 해체설에 대해 "소설같은 기사에 팬들 당황하셨을 텐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제아는 SNS를 통해 "(브라운아이드걸스)앨범 준비중인데 이게 무슨 소린지. 너무 내용도 구체적이라 당황스럽다. 절대 사실 아니고, 혹시 그런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직접 팬들께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제아, 미료, 나르샤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곧 만료돼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빅토리아 "계약해지 생각도 안해 " 루머 해명

걸그룹 에프엑스 빅토리아가 최근 중국에서 불거진 계약해지 루머에 해명했다. 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드라마 '미려적비밀' 발표회에서 빅토리아는 최근 중국 언론에서 제기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해지 루머에 대해 "어쩌다가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까지 회사와 계약해지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회사가 나를 발굴하고 키워냈고, 외국인인 내가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회사사람들 모두가 잘 보살펴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근 '죽방전설'로 방송복귀…15일 첫 방송

개그맨 이수근의 방송복귀 프로그램인 케이블채널 KBS N스포츠 '죽방전설'이 15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죽방전설'은 당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숙해온 이수근의 복귀작이다. 이수근은 첫 방송에 앞서 KBS N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방송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KBS N 김미견 PD는 "이수근의 진지하고 성실한 촬영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AOA, 스포츠 선수 변신…새 앨범 콘셉트 공개

22일 세 번째 미니앨범 '하트 어택'으로 컴백하는 걸그룹 AOA가 '스포티 섹시' 콘셉트로 돌아온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0일 "타이틀곡 '심쿵해'에서 AOA는 스포츠 선수로 변신해 건강미와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OA 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 선수로 변신한 초아 지민 민아 찬미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네 멤버들은 각각 그라운드를 배경으로 AOA의 새 심벌이 새겨진 하얀 스포티 룩을 통해 경쾌하고 건강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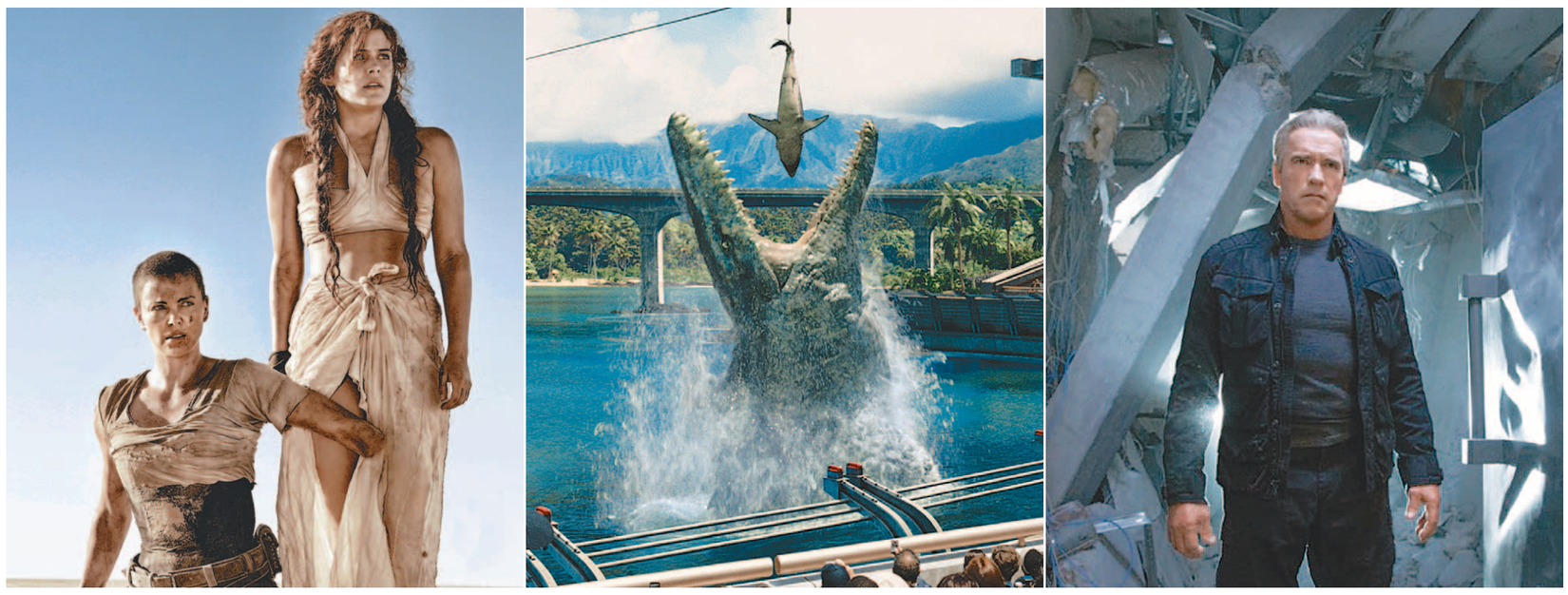
책 랭킹

1위 책 정보보기

5월 27일~6월 2일, 자료: 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1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2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채사장
3	담론	신영복
4	허즈번드 시크릿	리안 모리아티
5	7번 읽기 공부법	야마구치 마유
6	지적 대화를 …지식: 현실너머 편	채사장
7	하버드 새벽 4시 반	웨이슈잉
8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유시민
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10	레프트오버	톰 페로타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인기 시리즈의 골격만 유지한 채 전혀 새로운 이야기인 리부트 영화가 잇따라 국내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매드맥스:분노의 도로', '쥬라기월드'에 이어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왼쪽부터)는 7월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 | 워너브라더스코리아·UPI코리아·롯데엔터테인먼트

명작, 다시 태어나다…리부트 영화의 역습

〈기존 시리즈를 새 이야기로 다시 제작〉

뉴스 인사이드

'매드맥스' '쥬라기월드' '터미네이터' 등 원작 명성 힘입은 리부트 작품 흥행몰이

인지도·연속성 무기…올드 팬 향수 자극

최신 영상기술로 재탄생…관객들 열광

'리부트'(reboot)가 영화 흥행의 주요 조건으로 떠올랐다.

11일 개봉하는 '쥬라기월드'의 예매율이 10일 오후 현재 70%까지 치솟아 초반 흥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영화가 택한 리부트 제작 방식에 관심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350만 관객에 다다른 '매드맥스:분노의 도로'(매드맥스)나 7월2일 개봉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등이 과거 인기를 얻은 원작 시리즈를 토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리부트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쥬라기월드'는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내놓았던 혁신적인 공룡영화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새로운 버전.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는 시리즈 통합 4편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극의 개성과 주요 캐릭터만 유지하고 이야기를 전면 바꾼 리부트의 1편이다.

리부트는 '인지도'와 '연속성'을 주 무기로 폭넓은 관객층을 빠르게 공략한다. 실제로 '쥬라기월드'의 예매율이 고공행진한 배경 역시 과거 이 시리즈에 열광한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했다는 평가다. 비록 이야기는 바뀌었지만 영화 고유의 개성이 유지되면서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호기심까지 얻는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예상을 깨고 크게 주목받은 '매드맥스' 역시 비슷한 분위기 아래 흥행에 성공했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세 편으로 이어진 원작 시리즈 특유의 분위기와 주인공 캐릭터만 남긴 채 이야기는 새롭게 바꿨다. 과거에 얻은 유명세로는 '올드 팬'을, 세련된 영상미로는 새로운 관객층을 동시에 자극한 리부트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리부트는 할리우드의 제작환경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도 풀이된다. 최근 10여년 사이 '소재 고갈'에 시달리다 '안정된 투자'로 선회한 할리우드는 도전적인 시도보다 흥행 가능성이 검증된 작품 제작에 주력해왔고 리부트는 두 조건을 충족하는 매력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역시 이런 분위기 아래 탄생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보그영화의 대명사로 통한 유명세에 힘입어 재탄생하는 이번 영화를 기점으로 리부트 3부작에 돌입한다. 미래의 지도자 존 코너의 탄생을 막기 위해 더 앞선 과거로 향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다.

이 같은 리부트 작품에 관객이 열광하는 것은 길게는 30년 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시리즈가 그 기간 발전한 최신 영상테크놀로지에 힘입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면모를 갖춘 때문이기도 하다. '쥬라기월드'와 '매드맥스'는 과거에 없던 아이맥스 스크린을 통한 3D 버전으로 제공되면서 관객 동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리부트(reboot)란?**=기존 시리즈 영화의 콘셉트와 주요 캐릭터만 남기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제작 방식. '재시동'을 뜻하는 컴퓨터 용어와 같다. 과거 영화의 이야기를 뼈대는 그대로 두고 다시 만드는 '리메이크', 시리즈에서 한 발 벗어난 번외편인 '스핀오프'와는 차이가 있다. 2005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베트맨 비긴즈' 성공 이후 각광받기 시작했다. 최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혹성탈출' 시리즈도 그 성공사례다. 현재 '로보캅', '슈퍼맨'의 리부트 작업이 한창이다. 반면 한국영화는 미미하다. '공공의 적' 시리즈인 2008년 개봉작 '강철중, 공공의 적 1-1'이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꼽힌다.

'복면가왕' 출연자 섭외의 비밀

인지도 비해 가창력 안 드러난 인물 선별

실명 대신 별명…섭외 후에도 '철통보안'

누군가 출연만 하면 단숨에 '화제의 인물'로 떠올라 '스타제조기'로 불리는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복면가왕). 기상천외한 닉네임의 괴상한 복면을 쓴 출연자는 그 유명세나 인지도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가창력으로만 승부를 펼치며 시청자를 짜릿한 감흥의 세계로 이끈다. 매주 시청자와 누리꾼은 복면의 주인공을 찾는 데 바쁘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간다.

그럴수록 한숨소리(?)가 커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제작진이다. 매주 새로운 출연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은 격주로 녹화하지만, 때마다 8명의 새로운 인물을 무대에 세우기란 녹록한 일이 아니어서 제작진은 일주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한다.

이들이 새로운 출연자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수, 개그맨, 연기자, 뮤지컬 배우 등 분야를 불문하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이들의 각종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이다.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드러낸 연예인들의 가창력을 확인하고 1차 라인업을 꾸린다.



이후 경연 무대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을 선사하기 위해 인지도에 비해 가창력이 드러나지 않은 이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섭외를 시작한다.

최근엔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연예인 측에서 먼저 출연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편견을 깨고 실력으로만 평가 받고 싶어 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이 같은 섭외 과정에서 특이한 제스처를 자주 하거나 목소리가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라고 해서 출연자 후보 목록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다. 경연 무대에서 부르는 두세 곡을 새롭게 편곡해 노래의 특성만을 살림으로써 개성 강한 목소리가 도드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연 도중 복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될 수도 있을 헤어스타일, 신체 특징 등은 복면과 의상으로 충분히 가린 뒤 무대에 세운다.

섭외 이후에는 '철통보안'에 힘쓴다. 녹화장엔 해당 출연자의 매니저 등 최소의 관계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한다. 이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에게는 출연자의 실명 대신 닉네임을 부르게 한다. 또 곳곳에 CCTV를 설치한 뒤 출연진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 겹치지 않게 하는 세심함도 빼놓지 않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개그콘서트' 숟가락 얹는 선배마저 안 보인다

전성기 이끌던 주축 개그맨들 대거 이탈

선배들의 부재…'세대교체 실패' 위기로

KBS 2TV '개그콘서트'가 시청률 정체에 빠진 가운데 선배 개그맨들의 활약이 예전같이 못하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그콘서트'는 최근 3개월여 평균 시청률 11~12%대에 머물고 있다. 한때 20%대까지 유지하며 인기를 모았던 상황에 비하면 정체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렛잇비' '닭치고' 등 장수 코너들과 함께 '도찐개찐' '나는 킬러다' 등 일부 코너가 초반의 화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과거에 비해 스타성을 겸비한 신인급 개그맨 발굴도 더뎌졌다.

방송 관계자들은 그 원인을 선배들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까지 '개그콘서트'의 터줏대감으로 후배들을 이끌었던 개그맨 김대희와 김준호는 전 소속사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 및 횡령 등 법적 공방에 연루된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양상국, 허경환, 김원효, 김준현, 정태호, 신보라 등 인기 코너와 캐릭터로 전성기를 이끌던 주축 개그맨들은 '개그콘서트'를 떠났다. 그나마 2001년 데뷔한 정명훈을 비롯해 이동윤, 노우진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존재감이나 활약상은 예전보다 미미하다. 또 세대교체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서 '개그콘서트'의 새 코너 배출에 구심점 역할을 하며 선후배 개그맨의 연결고리가 됐던 멘토·멘티제도 무색해졌다.

'개그콘서트'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폐지한 '크레이지러브'와 '헬스보이'를 잇는 새 코너를 순차적으로 준비 중이다. 올해 초 뽑은 공채 개그맨들도 무대에 오르기 위해 워밍업 중인 만큼 새 얼굴 발굴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레드벨벳·멜로디데이 '컴백, 새 멤버, 성공적'

레드벨벳과 멜로디데이. 2014년 나란히 데뷔한 두 걸그룹이 나란히 두 번째 음반에 새 멤버를 투입하며 성공시대를 맞고 있다.

작년 8월 데뷔 당시 4인조였던 레드벨벳은 3월 두 번째 음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발표하면서 예리를 투입시켜 5인조로 변신했다. 이후 동명 타이틀곡으로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채널의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 덕분에 예리 투입은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작년 2월 3인조로 데뷔한 멜로디데이도 9일 내놓은 두 번째 음반 '러브 미'에서 새 멤버 유민이 합류해 4인조로 활동에 나섰다. 유민은 배우 장동건의 5촌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고, 기존 멤버들도 한층 예뻐진 외모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곡은 발표와 동시에 30위권에 진입했고, 온라인상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멜로디데이의 매니지먼트사 뷰가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이달 초 컴백 예고 이후 일주일간 페이스북 '좋아요' 수가 2배 이상, 홈페이지 트래픽도 10배 이상 늘었다. 9일 SBS MTV '더 쇼 시즌4'로 첫 무대를 가진 이후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레드벨벳



멜로디데이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